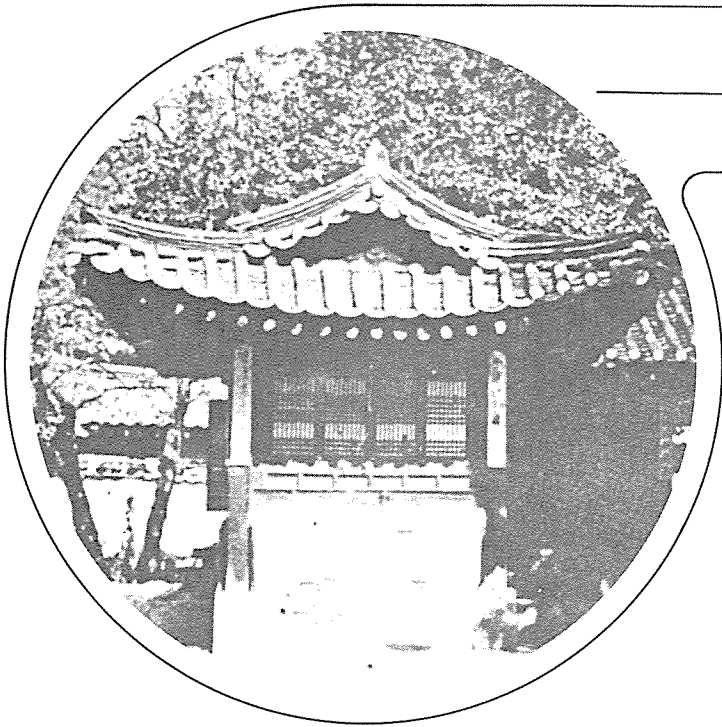


韓國木造建築의 樣式과 構造 및 그 特徵

(本 論文의 內容은 1982년 11월에 日本에서 開催된 國際木造文化財 保存을 위한 심포지움에 發表된 內容의 하나임.)

張 慶 浩

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長



韓國木造建築의 歷史的 背景

韓國의 木造建築은 先史時代, 즉 新石器時代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竪穴住居로서 현재에도 그 住居址의 발굴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 竪穴住居의 형식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용되어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 出土되는 櫛文土器의 編年으로 미루어 대체로 紀元前 2,000~3,000년 경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建築方式은 역시 木造의 움막집이었다는 것이 住居址 발굴 결과 地面에 툫린 기둥구멍 등의 흔적으로 잘 입증된다. 이 시기에는 木造라고 하여도 새들이 둥우리를 짓는 것과 같은 가장 原始的인 木造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초기 鐵器時代에는 중국 陽子江과 韓半島 남쪽에 있는 洛東江 사이에 部族國家가 세워지고 그들의 전쟁을 통하여 고구려·백제·신라라는 세계의 王國이 세워지게 된다. 이 중에도 고구려는 다른 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王權體制를 세워 紀元 53년에서 145년에 高朱蒙에 의하여 나라를 이룩하게 되며 또 한편 신라는 5世紀 경에 奈勿王이 들어서면서 王權世襲體制를 이루게 된다. 아울러 백제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은 여러 說이 있으나 古余王에 의하여 紀元 3世紀 경 王權世襲體制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三國이 定立되는 시대가 바로 三國時代인데 이때에는 木造建築도 이미 많은 발전을 보게 되어 그 架構와 栱包를 나타내 주는 壁畵와 古墳 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三國은 결국 羅唐연합군에 의하여 A.D. 668년에 통일을 보게 되며 이때부터 韓半島를 통일한 統一新羅의 찬란한 文化를 이룩하여 建築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보여 현재 남아 있는 石造建築文化財를 보아 알 수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木造架構를 表徵한 부분이 있어 그 架構를 추측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현존하는 木造建物の 예가 없어 다른 傍證資料를 가지고 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前記한 三國에서도 그러려니와 특히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佛教文化의 全盛時期이며 建築文化의 발전도 佛教建築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佛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建築文化는 高麗時代(10C)에 접어들면서 傳承되고 새 王國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寺院을 세우게 되어 佛教를 더욱 崇尚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 시대의 초기는 아니지만 後期木造建築의 實例들이 아직 보존되어 있어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전 시대의 樣式을 推定하는 資料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중국의 元나라에서 받아들였거나 또는 統一新羅에서

이어진 木造建築을 自體的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建築形式을 수립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가 중국 몽고족의 침략과 그 内部的 쇠퇴로 붕괴되고 朝鮮의 새 王國이 세워지면서 佛教의 弊端을 들어 抑壓政策을 쓰게 되자 모든 寺院은 山間으로 이전하게 되고 都心의 寺院은 일부 철폐되기도 하며 崇儒政策으로 文廟와 같은 孔子를 모시는 建築物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대는 佛教建築에 이용되던 木造建築의 形式은 前時代의 것을 그대로 써내려 오다가 儒敎의 정신에 입각한 素朴함과 簡易한 架構를 추구하고 規格化시켜 建築文化의 새로운 樣相을 보여주게 된다.

이상과 같은 歷史的 背景에 따라 韓國의 木造建築은 발전하면서 변천하게 되는데 本稿에서는 이를 木架構 構造形式面을 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韓國木造建築의 木架構 構造形式의 發展과 그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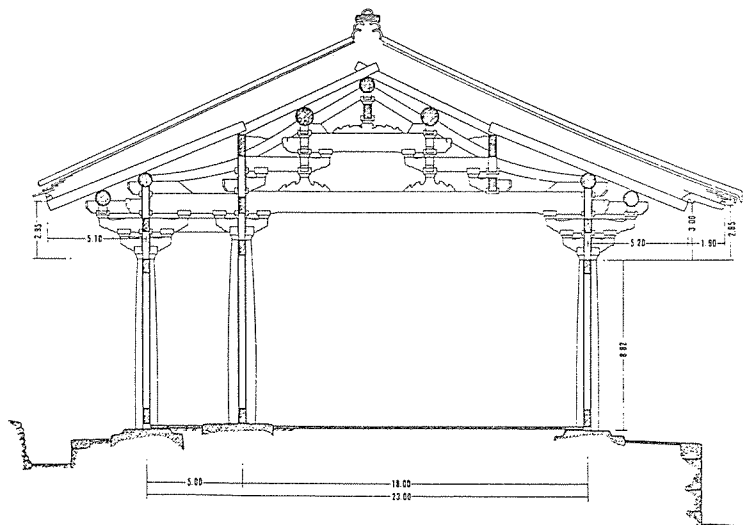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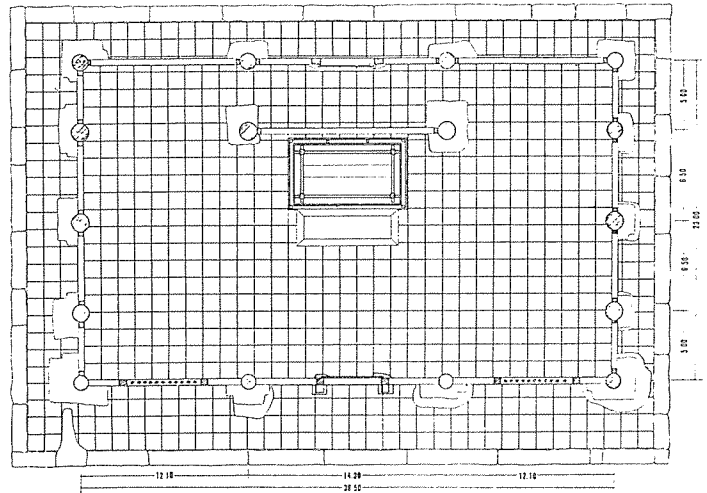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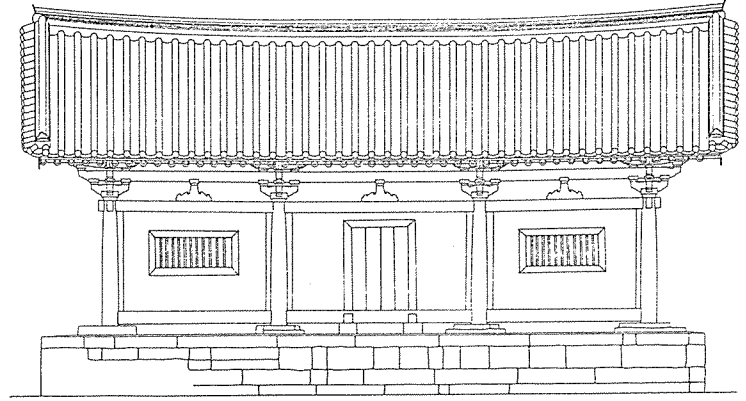
한국전통 木造建築의 발전단계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다.

① 先史時代 竪穴住居의 木造架構 形式의 發展

한국 先史時代의 竪穴住居는 그 遺址가 많이 발견되었고 또 앞으로는 많이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木

造架構形式에 대하여 確證을 잡을만한 資料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平面의 形態와 기둥구멍의 위치, 그 깊이와 傾斜度로서 그 위에 세워졌던 木造架構를 推察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즉 현재까지 發掘調査된 遺址를 보면 平面으로 보아서 직경이 약 6m 정도의 不定形의 圓形인 유지(黃海道 鳳山郡 智塔里, 平南 溫川郡 雲下 弓山)가 있는데 여기는 中央部에 爐地가 놓이고 바닥에는 土器를 세워 놓았던 구멍과 함께 直徑이 약 10cm~15cm 정도의 기둥구멍이 여러개씩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구멍은 竪穴 주위에도 있었고 그 内部에도 있어 움(shelter)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둥구멍은 보통 직경이 10cm 이상 깊이가 20cm 이상인데 이 중 몇개는 40~50cm 정도의 깊이와 20cm 이상의 직경이 되어 主기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 주위의 기둥에는 중앙을 향하여 경사지게 뚫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 위의 架構로는 지붕을 이룬 架構를 상상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圓形의 平面이란 점과 주위의 기둥구멍이 컸었다는 점, 또 中央을 향해서 경사지게 세워졌고 内部에 主기둥이 세워졌으리라는 것들로 미루어 圓錐形의 지붕으로 처마가 땅에 닿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시기에 쓰였던 石器 등의 道具를 생각할 때 그 連結部는 덩쿨의 줄기들을 이용하여 붙들어 매는 방법을 사용했으리라고 추측되는 것이다. 이 지붕 위에는 나무가지와 나뭇잎 등을 덮어 되도록이면 눈비를 피했을 것도 함께 추측된다. 여기서 비록 초기의 원시적 木架構지만 主기둥의 설치와 이를 補強하는 보조적인 架構와 지붕의 平面을 이루기 위한 서까래의 설치 등, 몇가지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構造를 이루게 되었다고 추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構造는 住居地의 平面이 方形이거나 長方形인 遺蹟(京畿道 坡州郡 金村面 交河里 및 同月 籠面, 玉石里) 일 때도 應用이 되어 平面 주위에 기둥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内部中央에서도 長軸을 따라 기둥구멍이 一列로 뚫려 있는 경우와 주위에만 구멍이 촘촘히 뚫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主기



등을 세우고 이 기둥을 의지하여 지붕構造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平面과 기둥의 排列로 보아 우진각의 長方形지붕을 추측할 수 있다. 또 後者의 경우 主된 기둥의 흔적이 中央部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上部의 架構는 「보」라든가 아치의 원리를 이용한 굽은 部材를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은 先史時代의 木造建築構造形式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推理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실제의 遺構는 없는 것이다. 이 후에는 三國時代의 木造建築이 이루어지

겠지만 이 전에 竪穴住居建築의 木架構가 한층 더 발전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② 柱心包系の 木造架構形式의 發展

한국에서 包作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를 언제부터로 잡아야 할는지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4世紀 벽화고분에서 나타나는 벽화에는 기둥을 그린 부분이 있어 이미 柱料를 쓰고 있음이 나타났고 5C 古墳의 벽화에서는 기둥 위에 상당히 발달된 包作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엔타시스가 뚜렷한 기둥 위에는 柱料가 놓여 있고 이 위에 栱包를 짜았다.

㉡ 柱料와 小累는 밑에 굽받침을 놓는 경우와 굽받침 없이 놓이는 경우가 있고 柱料나 小累 밑의 굽에는 안으로 內反된 曲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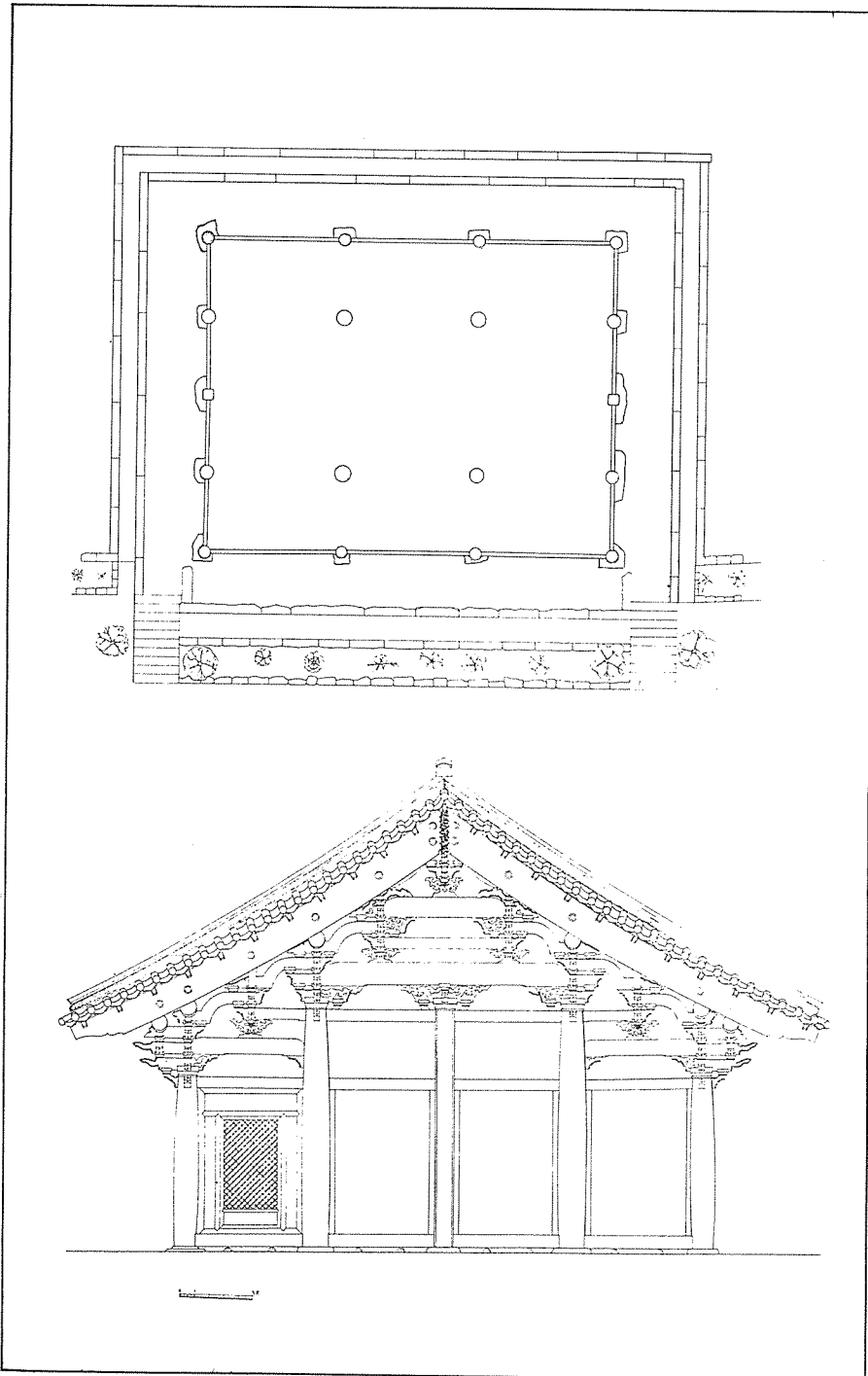
㉢ 栱包는 檐遮가 1段으로 짜여지는 경우와 2段으로 짜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2段으로 짜여지는 경우는 栱包의 出目이 있다는 것을 構造的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 檐遮의 끝단은 上部에서는 垂直으로 直切하고 下部에서는 안쪽으로 斜切시키고 있다. 또 小累는 一枋三升式으로 중앙 위에도 두고 있다.

㉤ 위와 같은 包作은 기둥 위에서 짜여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 枋枋 위에서는 人字空間包를 두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包作의 構造는 한국의 柱心包作의 始原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架構는 알길이 없다. 이러한 柱心包系의 형식은 백제나 신라에서 영향받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 이 시대의 遺構가 남아 있지 않고 있어 확실한 것을 볼 수 없고 다만 佛敎의 유물로서 백제시대의 靑銅小塔이나 신라시대의 金銅佛龕 등의 家形小品을 관찰해 봄으로써 대략적인 栱包의 형식을 알 수 있고, 또 신라의 栱包에 대하여는 上記 佛龕 외에도 불국사 다보탑에서 보는 石材의 柱料와 小累의 형태에서부터 1976년 雁鴨池에서 出土된 木片의 栱包部材, 또 신라 寫經에 나타나는 佛堂圖 등에 의하여 더 近似한 柱心包系 양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의 資料들을 종합하여 볼 때 三國時代의 柱心包形式의 특징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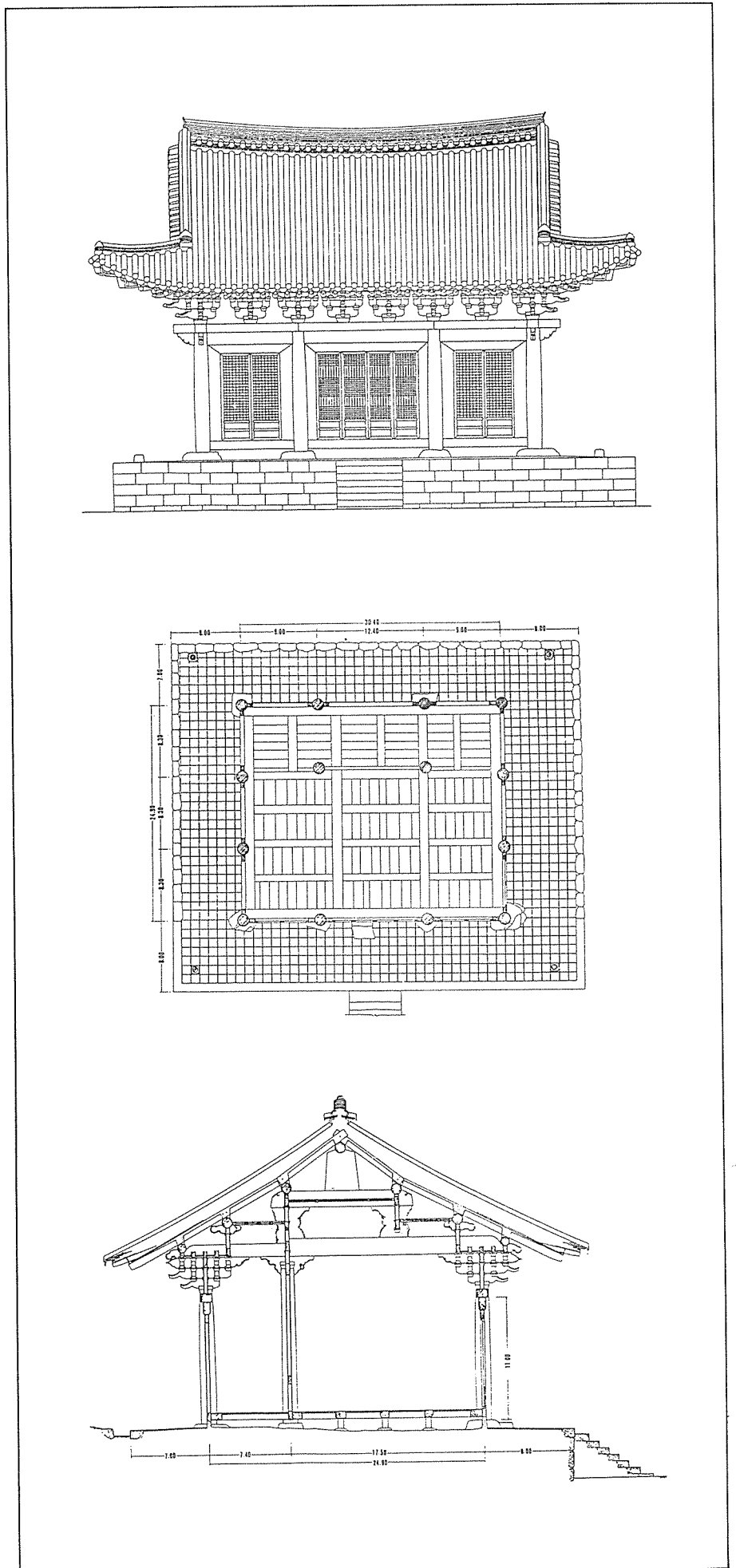
㉦ 柱料나 小累의 굽받침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두 경우가 있고 이 굽에는 內反된 曲을 이루고 있으며 檐遮는 翹頭形으로 그 端部의 上部는 垂直으로 直切되다가 下部에서는 안으로 경사지게 一切(1段) 또는 2切·3切로 깎아낸 形式을 취하고 檐遮에는 栱眼을 두되 고구려의 벽화고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小累 밑을 段을 두어 높여서 이룬 것과 雁鴨池에서 出土된 檐遮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面의



邊죽을 퍼내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栱包에는 出目を 두고 栱包帶中枋까지 갖는 발달된 構造形式을 취하고 下昂을 사용하고 있다.

㉡ 三國末期 즈음에는 空間包까지 두는 多包系의 過渡的인 양식까지 보여 주고 있다. 또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柱心包系 양식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實例가 많이 있어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柱心包系樣式의 주요한 예를 들면 鳳停寺 極樂殿, 浮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 無爲寺 極樂殿, 高山寺 大雄殿, 松廣寺 國師殿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柱心包系의 형식은 기둥에 뚜렷한 엔타시스를 두고 있으며 栱包는 기둥 위에서만 짜여지고 있으며 空間包를 두고 있지만 간혹 花盤形의 長舌을 두는 경우가 있고 柱枋나 小累를 三國時代의 것의 경우와 같이 곱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곱에는 内反된 曲을 보이고 있다. 또 檐遮는 翹頭形에서 차츰 변화하여 雙S形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 牛舌과 같은 外出檐遮가 생기기 시작하고 柱枋 밑에서 놓이는 翫檐遮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는 柱心包形式을 크게 둘로 나누는 요인으로 설명되게 된다. 다음 보의 斷面을 曲線으로 加工하여 天井없이 노출되어 架構의 꾸밈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加工하고 있다. 또 외부에서 보더라도 복잡하지 않은 꾸밈으로 맞배지붕을 취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박하고 작은 규모의 건물을 꾸미고 있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와서는 처음에는 그 형식을 계승하여 사용해 오더니 고려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多包系建築의 盛況으로 柱心包系形式은 퇴화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柱心包系建物は 多包系의 특징을 같이 共存시켜 雙S形檐遮가 다시 翹頭形으로 변하고 昌枋 위에 平枋이 놓여 柱心包를 짜는 경우도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 主建物の 위치에서 附屬이나 副建物の 위치로 밀려나게 되어 建物規模도 더욱 잘 알려지지게 되며 栱包도 점차 단순 간소화를 지나서 翼工系의 規格化되는 建物樣式으로 변해가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柱心包系 형식도 多包系와



翼工系の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③ 多包系 木造架構形式의 發展과 變遷

多包系樣式은 前術한 것과 같이 柱心包系의 建築樣式을 기본적으로 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보다도 中國(遼·金·元)時代부터 사용되던 多包系形式이 傳來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그 사용 요인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이들의 예로는 開心寺 大雄殿, 鳳停寺 大雄殿, 서울 南大門, 雙溪寺 大雄殿, 長谷寺 下大雄殿, 景福宮 勤政殿 등이 있다. 이들 多包系形式이 柱心包系樣式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栱包에 있어 空間包를 두고 있다.

㉡ 昌枋 위에 平枋을 올려 놓아 包作들이 위에 配列하고 있어 기둥 위에 직접 栱包가 짜여지지 않는다.

㉢ 檐遮는 그 端이 둥글게 깎은 翹頭形의 檐遮를 두고 外出의 檐遮는 牛舌과 같이 뾰게 되고 内部로는 보 밑에서 보아지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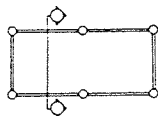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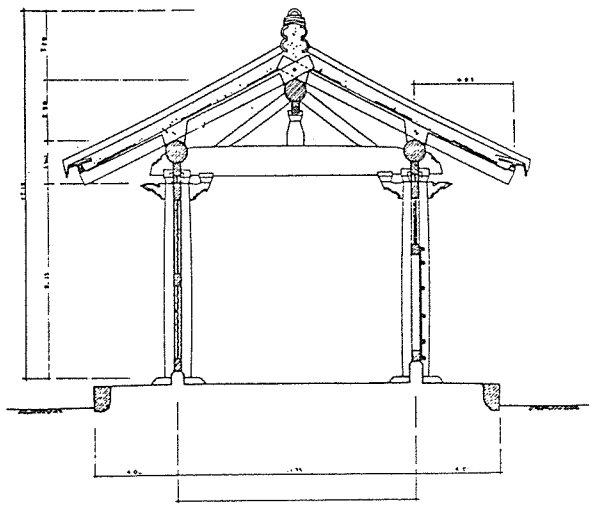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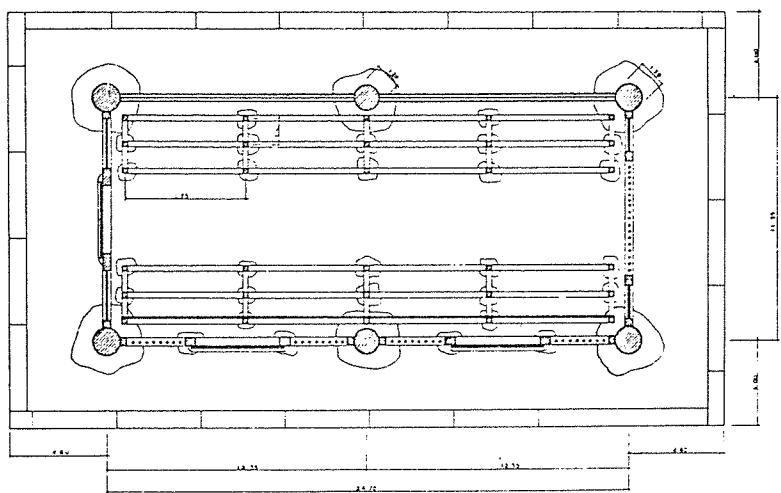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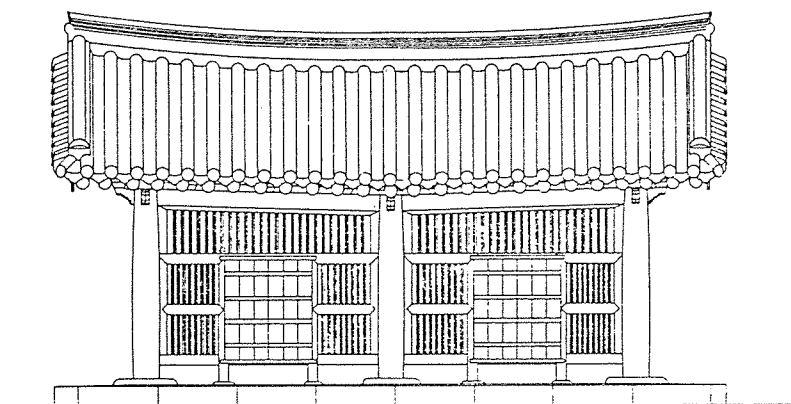
㉣ 内外出目數가 점점 증가되어 건물을 장엄하게 보여주며 또 内部空間을 높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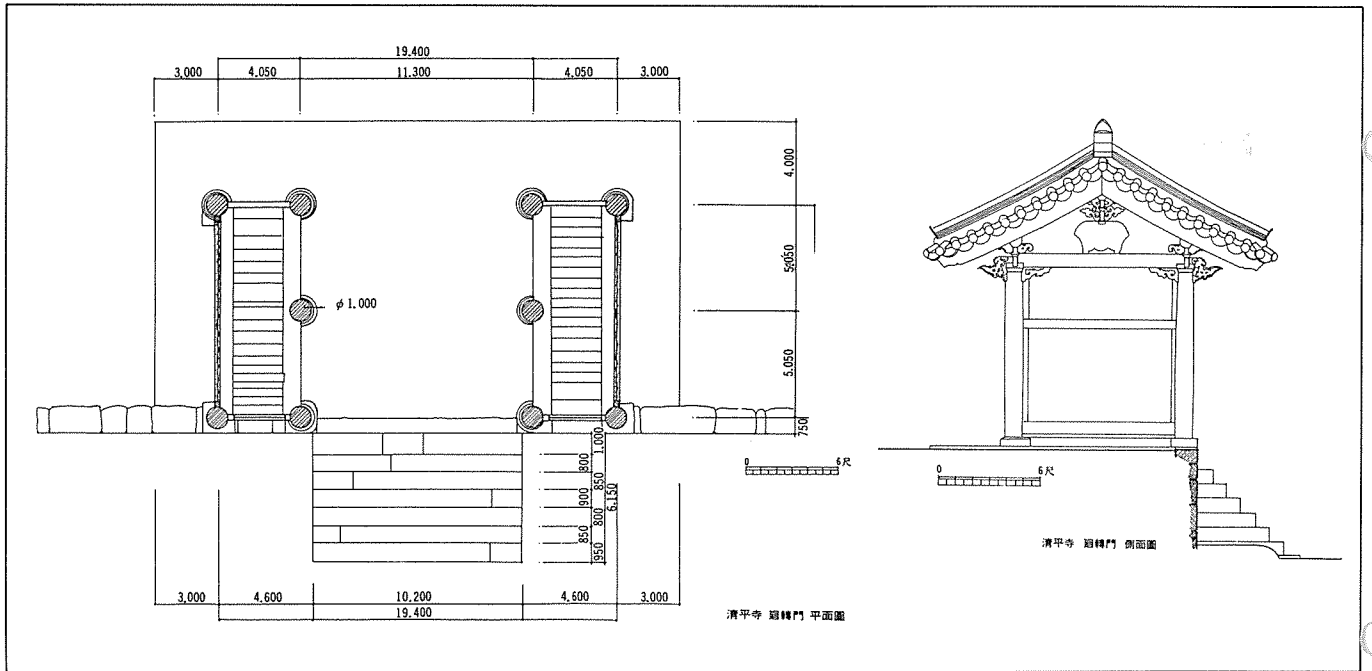
㉤ 内部반자를 新設하여 内部架構구조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部材의 加工을 아름답게 하지 않고 있으며 加工도 단순하고 規格化 시키고 있다.

㉥ 지붕도 비교적 복잡한 八作지붕을 하고 있다.

㉦ 기둥에는 엔타시스가 弱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도 초기에는 柱心包系 形式의 특징도 그대로 보여주어 内部의 架構를 裝飾的으로 아름답게 꾸미어 반자없이 노출시킨다던가 하여 主要建物を 장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人字台工을 사용하고 檐遮나 牛舌의 끝이 둔하고 構造的으로 堅實美를 나타내다가 후기에 와서는 垂舌과 仰舌 등 끝이 뾰족하게 되고 曲을 많이 두어 복잡하고 퇴화된 지나친 裝飾이 사용되고 있게 된다. 그리하여 按草工이나 雲宮 落陽 등의 裝飾들이 사용되지만 지나친 裝飾化는 오히려 불안한 요소를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④ 翼工系形式의 發展과 變遷

翼工系形式이란 간소화된 木造構造形式이 생기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서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崇仰하는 데서 유교적인 社會精神에 때로는 소박성의 發露와 對內的으로 부족한 경제적 要因이라 볼 수 있겠는데 多包系의 形式構造보다 간단하고 加工이 힘든 柱心包系形式보다 加工이 쉬운 規格화된 構造를 피하게 되어 이룩된 것이 바로 翼工系라 말할 수 있겠다. 이 형식은 조선초기에는 柱心包系 形式의 構造와 分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過渡的 形式을 보여 주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시대에는 柱心包의 外出檐遮가 牛舌形으로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 牛舌이 뾰족하게 됨으로써 翼工과 같이 변한다. 특히 柱料 밑에 軒檐遮의 牛舌의 끝이 뾰족히 나올 경우 翼工과 分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翼工系形式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㉑ 대부분 正殿이 아닌 附屬建物이나 樓亭에 많이 사용된 形式이라 할 수 있어 構造가 간소화되고 部材가 規格化 되고 있다.

㉒ 翼工은 柱料 밑에 놓이는 軒檐遮의 結構와 비슷한 짜임을 갖고 있으며 翼工牛舌 위 에 바로 柱料와 大梁을 얹어 놓게 하여 이 牛舌 後側에는 樑奉을 이루고 있다.

㉓ 이 翼工系形式은 牛舌이 하나 있는 경우, 즉 一翼工인 경우와 牛舌 위

에 다시 牛舌을 重疊하여 놓는 二翼工의 경우가 있다. 後者인 경우 出目を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㉔ 조선중기에서 부터는 典型的인 翼工系建物을 많이 써 오다가 조선말기에 와서는 牛舌의 끝이 주름을 잡는 듯한 雲刻한 彫刻으로 변하고 附加的인 裝飾으로 또다시 翼工의 退化期를 나타내고 있다.

㉕ 이 형식은 지붕形態나 外貌가 자유로와서 맞배에서 八作까지 많이 사용된다.

結 論

이상으로 우리나라 木造建築 形式의 발전을 요약하면 4세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柱心包系의 形式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것이 三國時代를 통하여 사용되며 고려시대에 와서 전형적 柱心包系形式을 이룩하는 전성기를 이룩하며 또 한편 이 柱心包系形式 자체의 발전·변천과정과 중국에서 전래된 多包系의 요소들이 혼합하여 多包系形式이 생기게 되어 고려중기부터는 盛行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多包系形式의 盛行은 柱心包系 形式의 퇴화를 가져오게 하여 조선초기에는 전형적인 柱心包系 形式이 多包系와 翼工系의 특징을 共存하는 形式의 建物의 예가 많이 나타나다가 결국 翼工系의 形式을 낳게 하여 조선중기에는 전형적인 위치의 확립을 보게 된다. 이 翼工形式의 사용은 多包系形式과 함께 조선말에는 퇴화되는

것이다.

● 參考文獻

金正基 : ① 韓國住宅의 어제와 오늘, 第一編 우리나라 住宅의 역사, 住宅公社 1979

② 韓國木造建築, 一志社 1980

尹張燮 : 韓國建築史, 서울 東明社, 1973

鄭寅國 :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文化財管理局 : 韓國의 古建築 1號-4號

筆者 : 韓國木造建築에 나타난 包에 관한 研究

● 圖面說明

• 도면 1~도면 3은 鳳停寺 極樂殿의 平面·斷面·立面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柱心包系形式의 建物로서 가장 오래된 것.

• 도면 4~도면 5는 修德寺 大雄殿의 平面 및 斷面이며 鳳停寺 極樂殿의 柱心包系形式과는 좀다른 형태를 볼 수 있는 건물임.

• 도면 6~도면 8은 觀龍寺 大雄殿의 平面·斷面·立面으로 多包系의 形式임.

• 도면 9~도면 11은 海印寺 藏經板庫의 西寺刊庫인데 柱心包系形式으로 부르고 있지만 翼工系形式으로 變形되고 있다.

• 도면 12~도면 14는 清平寺 廻轉門의 平面·正面·側面이며 翼工系形式임.